

## 영적 상징과 꿈 <32>

### 부제: 석가모니의 꿈과 해석

성경과 달리 불경에는 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중 초기경전에 석가모니가 성불하기 직전 꾸었다고 하는 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귀한 꿈에 관한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석가모니 자신의 꿈이라니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이 꿈들은 초기경전인 앙굿따라 니까야 중 '키다란 꿈의 경(Mahāsupina sutta, A5.19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석가모니는 깨달음 직전에 어떤 꿈들을 꾸었을까, 그리고 그 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그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 꿈의 경(經) 1

“여래(如來)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꿈이다.

‘대지는 큰 침상이었고, 산의 왕 히말라야는 베개였으며, 동쪽 바다에는 왼손을 놓았고, 서쪽 바다에는 오른손을 놓았고, 남쪽 바다에는 두 발을 놓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꾸었던 첫 번째 큰 꿈이다.”

#### 해설

이 꿈은 일반적으로는 나오기 힘든 '큰 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과 바다와 대지가 등장하고, 이 꿈의 주인공 싯다르타는 대륙을 뒤덮을 만큼 큰 거인(巨人)의 모습으로 누워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꿈을 단순히 석가모니라는 영적 거인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렇게 뻔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상징체계 안에서 등장하는 '인간'은 인도검, 즉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신의 상징물에 가깝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가득 담고 있는 자연물(自然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태양, 바다, 산, 거목(巨木) 등 자연의 상징물들이 그러하며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는 인간보다 오히려 소나 말, 코끼리, 뱀 등의 짐승이 신성(神性)의 상징으로 채택되곤 합니다.

이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싯다르타가 누워있는 대지(大地)는 원형(原型: Archetype)적인 의미로 등장한 에덴동산, 극락정토(極樂淨土)이며 히말라야 설산(雪山)은 희게 이루어진 영적 거인을, 바다는 영원한 생명,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에서 부처님,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것은 거인(巨人) 싯다르타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누워있는 대지(大地), 흰 눈이 덮인 산, 바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지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인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거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양가적(兩價的: ambivalent)입니다.

이 거인의 거대함은 한편으로는 인간나, 마귀인 내가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자아팽창(Ego inflation)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영적 거인으로 성장해가는 자성(自性)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거인은 인간 내가 나인 채 그대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아팽창이나,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되는 진정한 영적 거인으로서의 재탄생이나의 갈림길에 서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현실에서 아무 전제나 정보 없이 이 꿈이 제게 주어졌다면, 이 하나의 장면만으로는 사실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꿈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우리는 이 꿈의 주인공이 과연 나라는 의식이 거대해지는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깊은 우려의 마음으로 이후의 꿈들을 조심조심 따라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꿈이 깨닫기 직전의 석가모니의 꿈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그가 대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을 던져 줍니다.

만일 그가 거인이 되어 우뚝 서있었다면 그것은 나라는 의식의 거대화, 우뚝 선 자존과 이상(我相)의 거대화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 생명의 상징인 대지와 바다를 밟고 우뚝 서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신을 대항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석가모니의 꿈>

러나 다행히 그는 대지에 누워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 꿈의 경(經) 2

“여래(如來)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의 꿈이다.

‘따리아 풀이 배꼽에서 자라서 구름에 닿은 뒤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여래께서 깨닫기 전,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꾸었던 두 번째 큰 꿈이다.”

#### 해설

싯다르타의 두 번째 꿈으로 이어집니다. 누워있는 그의 배꼽으로부터 따리아(Tiryā)라는 넝쿨식물이 자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안도의 숨을 쉬어도 괜찮겠습니다. 그의 꿈이 자아팽창, 아상(我相)의 거인화(巨人化)로의 과정을 암시하는 꿈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는 의식의 죽음과 재탄생에 관련되어 있는 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나자빠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자빠진다, 즉 ‘나라는 의식’ 나라는 존재가 자빠져 죽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누워있는 거인은 ‘나’ 자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꿈을 인간적, 마귀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 싯다르타가 거인이 되어 대지를 침

대 삼아 누워있는 것으로만 보이겠지만,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대지를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지(大地)가 인간 싯다르타를 집어 삼킨 것입니다. 인간 싯다르타는 죽어서 대지와 하나가 되어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땅, 대지(大地)의 소산인 따리아 넝쿨이 그의 배꼽에서 자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 싯다르타, 나라는 마귀의 시체를 자양분 삼아 대지에 뿌리박은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따리아 풀은 하나님의 신의 상징이며 일종의 생명수(生命樹)입니다.

이제 인간 싯다르타는 죽어 엄마의 땅, 대지에 흡수되어 따리아 풀로 거듭납니다. 인간 싯다르타는 대지의 아들, 부처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누워있는 자는 인간 싯다르타요, 배꼽에서 자라난 따리아 풀은 '사카(석가:釋迦)족의 석가(모니:牟尼)'로 거듭난 석가모니(釋迦牟尼, Sakyamuni)입니다.

그런데 따리아 풀이 배꼽에서 자라기 시작한 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배꼽은 땀줄이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고로 따리아 풀은 태양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땀줄이기도 합니다.

배꼽에서 자라난 따리아 풀은 이처럼 영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 즉, 나라는 의식을 뚫고 등장한 자성(自性)의 나무이

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생명줄, 영적 땀줄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리아 풀이 구름에 닿은 뒤 멈추고 만 것입니다.

구름은 태양과 대지 사이를 가로막아 태양빛을 차단하는 존재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인 해를 가리는 마귀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해서 이 꿈에서도 따리아 풀이 구름에 닿은 뒤 '멈추었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필시 시커먼 먹 구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따리아 풀이 마주한 한계를 생각해볼 수 없게 됩니다. 따리아 풀은 구름에 가로막혀 더 이상 오르지 못했습니다. 따리아 넝쿨이 구름을 뚫고 더 올라갔다면, 태양을 마주할 수 있었겠지요.

이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신의 현현(顯現)이었음에도 끝내 뚫어내지 못한 마귀의 장벽 앞에 멈추어선 석가모니 자신의 한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름에 막혀 '멈추어 선' 따리아 넝쿨은 인도검을 벗고 생명나무로 거듭나려 애쓰는 석가의 모습이자, 마지막 장벽을 뚫

어내지 못한 자신의 한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이긴자께서도 석가모니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지막 한 단계만 더 올라 갔다면 생미륵불이 되었겠지요. 그는 그런 높은 경지에 올랐던 거예요." (2001년 10월 15일 말씀) 라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상징은 보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그의 상징은 따리아 풀입니다. 따리아 풀은 넝쿨식물이고 넝쿨식물은 태생적으로 굽은 나무기둥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석가모니가 따리아 풀이라면 따리아 넝쿨이 의지하고 오를 수 있는 그 나무, 보리수는 오히려 생미륵불, 완성의 하나님 이긴자의 상징입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열반경에서 '나도 생미륵 부처님 앞에 귀의해야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거니와, 그는 보리수에 귀의해 그 나무기둥을 휘감고 올라가는 따리아 넝쿨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구름을 뚫고 태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겠지요.\*

- 다음 호에 계속 -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 The Holy Dew Spirit is the Sign of Victor Christ! 이슬 성신은 이긴자 하나님의 증표!

하나님의 영이 많은 의인의 몸에서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진다.

▶ The material of life pours out of the body of the righteous, which is rich in the Spirit of God.

이것은 만물을 썩히는 독소 물질을 제거해주고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 This removes the toxic substances that cause all things to decay and breathes life into all things.

이것은 사람의 피를 썩히지 않고 맑혀준다.

▶ This doesn't cause human blood to rot; it purifies human blood.

이긴자 하나님의 몸에서는 의인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이 나온다.

▶ From the body of Victor Christ comes the substance of life, which comes from the body of the righteous.

성령으로 거듭난 이긴자 하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질은 이슬 성신(감로)이다.

▶ The matter of life that comes out of the body of Victor Christ, who is born again as the Holy Spirit, is called the Holy Dew Spirit (Sweet Dew).

이것은 성경, 불경의 각 종교의 경전과 고대 예언서, 비결서 등에 모두 예언되어 있다.

▶ This is prophesied in the Bible, Buddhist scriptures, ancient prophetic books, secret books, etc.

“이슬 성신이 하나님의 영이고 몸에서 그 이슬 성신을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의인이다.”

▶ “The Holy Dew Spirit is the God's spirit, and the one who pours out the Holy Dew Spirit from the body is the righteous with God.”\*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 이슬성신절의 유래

2023년 새해 첫날은 43번째 맞는 이슬 성신절이다. 이슬성신은 구세주 하나님의 성신(聖神)을 말한다. 그런데 성신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외에 왜 이슬이 붙었을까? 성신이 내리는 모습이 이슬(露)과 같다고 하여 이슬성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신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황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사 55:13:3)”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호세아 14:5)”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며, '이스라엘'이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긴자를 말한다.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는 말씀을 풀어서면 '하나님이 스스로 성령의 이슬로

변신하여 감람하시되 이긴자의 이름으로 오시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라는 말씀에서 '저'가란 성령의 이슬을 부어주는 이긴자를 가리킨 것이며 백합화란 구세주를 상징함으로 곧 이긴자가 구세주라는 것이다. 분명히 합동찬송가 88장 후렴에 '주는 저 산밭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슬성신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눈쁜 장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슬성신 은혜를 처음 내리기 시작한 분은 전도관을 설립한 박태선 장로님이다. 1960년대 중반에 출현한 박 장로님은 이슬성신을 내리면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곱사등을 펴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병어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며,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여길 수 있는 전무후무한 종교 역사(역사)였지만 박

장로님은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면서 충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박 장로님은 1980년부터 돌연 예수를 마귀새끼라고 치기 시작했고, 예수의 탄생을 경축했던 12월 25일 성탄절을 예수는 마귀새끼이므로 전도관에서 성탄절을 경축할 수가 없다면서 돌연 없애버렸다. 이러한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이 바로 승리제단 현 윤봉수 신도회장이다.

윤 회장님은 당시 박태선 장로님의 가장 신앙촌에서 재무담당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낼 수 없고, 이슬성신절로 지내야 되는데 날짜를 25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날로 할지 의논해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논을 하였는데 당시 청년연합회장 모씨가 제안한 1월 1일 안(案)이 채택되었고, 그에 따라 이듬

해인 1981년 1월 1일에 첫 이슬성신절 경축예배를 보게 되었다.”

이슬성신절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해진 것인데 천부교(전도관의 후신)에서는 이슬성신절을 5월에 지키면서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참 우스운 일이다.

이슬성신절은 1981년 새해 이슬성신은 해가 역사하시는 첫날 전도관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 승리제단에서 2회부터 매년 새해 첫날을 이슬성신절로 지키고 있다. 박태선 장로님은 이슬 은혜를 3년밖에 못 내렸지만, 구세주 조희성님은 하나님으로부터 1980년 10월 15일 "이긴자가 됐다"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이듬해 1981년 8월 18일 인류구원을 위한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십 여년 동안 계속해서 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다.

이슬성신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명약(名藥)임을 세상 만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알려야 할 것이다.\*